

칼럼

김수중 뉴스1 코olumn



바람에 흔들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이후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들불처럼 번졌다.

때의 남부 연방의 향수를 간직한 남군 깃발을 내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영국의 시위 군중들은 16세기 노예무역상으로 20만 명의 흑인을 서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수출했던 에드워드 콜스톤의 동상을 그의 고향 브리스톨에서 끌어내려 바다에 던졌다.

1936년 내놓은 소설은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400만권 이상이 팔려 성경을 제외하면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영화제작자 데이빗 셀츠닉이 1939년 만든 영화는 크라크 게이블과 비비안 리를 주인공으로 발탁한 게 크게 어필해서 작품상과 여우주연상 등 아카데미상 8개 부문을 휩쓸었다.

이 시위는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Black lives matter)는 이 름을 얻으며 사회 운동으로 미국 방방곡곡으로 확대되었고 영국 등 유럽 국가에도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흑백 버스타서 분리에 반기를 든 흑인 여성 재봉사 로자 파크 사건으로 촉발한 1960년대 흑인민권 운동에 버금가는 차별철폐 운동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미국 인종차별주의의 근원을 노예제도에서 찾아 그 역사를 단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미국의 흑인차별은 사회 시스템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 기업, 교육, 스포츠, 예술 공연계에서 차별받고, 심지어 학계에서도 백인 주류 학자들이 흑인 등 소수 민족 출신 학자의 논문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새롭게 제기된다.

이 영화는 개봉 때부터 일부 비판적 평가가 나왔다. 남북전쟁 당시 남부 백인 소유 농장을 배경으로 엮어진 스토리는 노예해방에 반대하는 남부의 정서를 강하게 담았고, 흑인 노예를 백인에 충성하는 인물로 정형화해서 노예제를 미화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법적 차별은 없어졌지만 사회 시스템과 관행 속에 배어 있는 흑인차별을 씻어내야 한다는 흑인들의 본원적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흑인 논객이 진보를 표방하는 백인들을 향해 외쳤다. 말로만 평등을 주장하지 말고 차별철폐 운동을 벌이는 흑인단체나 흑인 정치인들에게 돈을 기부해보라고. 백인 주류의 미국 사회를 아프게 찌르는 대목이다.

그러나 백인 주류의 미국사회에서 이 영화가 워낙 작품성과 흥행에서 최고의 미국영화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들리지 않았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흑인 영화시나리오 작가 존 리들리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LA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 영화가 유색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었고 남북전쟁 이후의 남부 사회를 미화했다"며 "HBO목록에서 내려놓으라"고

미국 국가 건설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의 목이 잘려 나가고 남북전쟁

주장했다. 시위 분위기에 압력을 느낀 HBO는 목록에서 지웠다가 흑인 영화인의 역사적 맥락을 첨부한 설명을 달고 다시 목록에 넣기로 결정했다.

흥미롭게도 중국에서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논란은 활발했던 모양이다.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의 웨이보(微博)에서 10일까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논쟁에 접촉한 회수가 6300만 회에 이를 정도로 중국인의 관심이 높다"면서 "HBO조치는 극단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네티즌들의 메시지는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 역사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어쨌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에피소드는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가 정치나 인권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 분야에 깊숙이 영향을 줄 것임을 암시한다.

미국인들은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흑인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선출됐고 그 뒤를 이어 인종주의적 편견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선출됐다.

트럼프의 인종적 편견이 아이러니하게도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운동의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맥락에서 11월 대통령선거의 귀추가 주목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며 그저 명작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인들이 이제 "흑인이 이 영화를 보면 나와 같은 정서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져보는 것도 달린 세상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社說

지역 노동계 소통은 형식보다 효율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지역 노동계와의 소통 창구를 전면 재조정한다고 한다. 낮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재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월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2급 상당(전문 임기제) 사회연대 일자리 특별보좌관(일자리 특보)의 후임자를 찾지 않기로 했다

재단 설립 추진단은 무보수 명예직인 단장과 4급 상당 전문 임기제 보좌관, 일반직 4명, 일반 임기제 2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의 추천과 공모 절차를 거쳐 단장과 임기제 직원을 선발하고 조만간 추진단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면 다음 달 정기 인사에서 일자리 특보직은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안 시는 노동계와의 창구 역할을 하는 일자리 특보를 새로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불참까지 선언한 노동계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선뜻 나서는 인사가 없어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다만 지난 4월 노동계가 사업에 복귀하면서 시 산하에 노동계와의 소통 창구인 상생 일자리 재단을 두기로 합의하면서 일자리 특보의 업무를 재단에서 맡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재단 설립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추진단장이 일자리 특보 업무를 대신하게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또 다른 노동계와의 소통 창구인 노동협력관(4급)도 교체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작년 6월 개방형 공모로 뽑은 전임 노동협력관의 사임 이후 후임자를 물색했지만 여태 지원자가 없어 내부 공무원에게 자리를 맡기고 있다. 시는 개방형이 아닌 노동 문제 전문성을 가진 내부 공무원으로 노동협력관을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 일자리 재단이 노동계와의 소통 창구를 맡게 되면 일자리 특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특보는 정원 외 자리이기 때문에 시는 다음 번 인사에서 아예 직제에서 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콜중독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기억하세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동안 평균 수난사고는 300여건으로 물놀이 성수기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 증가 및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화순소방서(서장 김용호)는 수난사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관내 수난 인명구조장비 및 각종 수난구조장비에 대

한 점검을 실시하고, 수난 사고 취약지역의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 수난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지역은 많은 저수지와 계곡 등이 자리잡고 있어 특히나 피서철에는 익수나 익사등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와 당부가 요구된다. 평소와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다.

첫째,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여 팔과 다리 등의 경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둘째,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에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 물을 적신 후 들어가도록 한다. 셋째,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식사 후에는 곧바로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넷째,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은 삼가도록 한다. 다섯째,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도록 하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는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아이가 놀도록 하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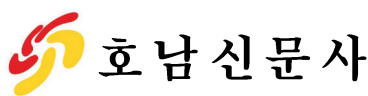
또 신발등의 물건이 떠내려 가도 절대 혼자 따라가서 건지려고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 경우 주위에 소리쳐 상황을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있더라도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구조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하게 구조하려 하지 말고, 119구조대에 신속히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류경진/화순119안전센터 소방장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저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군더더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b>호남신문</b>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border: none;"> <b>회 장 · 발 행 인 · 편 집 인</b> 김 평 호  <b>편 집 국 장 직 무 대 리</b> 서 선 옥         </td> <td style="width: 50%; border: none;"> <b>본 사</b>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b>서울 취재 본부</b>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td> </tr> <tr> <td colspan="2" style="border: none; text-align: center;"> <b>인터넷 호남신문</b> www.i-honam.com         </td> </tr> <tr> <td colspan="2" style="border: none; text-align: center;">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td> </tr> </table>	<b>회 장 · 발 행 인 · 편 집 인</b> 김 평 호 <b>편 집 국 장 직 무 대 리</b> 서 선 옥	<b>본 사</b>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b>서울 취재 본부</b>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b>인터넷 호남신문</b>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b>회 장 · 발 행 인 · 편 집 인</b> 김 평 호 <b>편 집 국 장 직 무 대 리</b> 서 선 옥	<b>본 사</b>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b>서울 취재 본부</b>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b>인터넷 호남신문</b>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